



# 하늘에서 꽃비 내려도 廓然無聖의 뜻 모르나니, 뭣고?

학 연 무 성

이와 같이 달마대사는 동토에 대승근기가 있음을 멀리서 관찰하시고 바다를 건너 일부러 오셔서 心印(심인)만을 오직 전하여 미혹한 중생에게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공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자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도록 열어보였으니 만약 이와 같이 보아 얻으면 문득 자기에게 일체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굴러서 벗어난 마음의 체가 나타나 이름이 있는 것임을 圓悟禪師(원오선사)는 평창하셨습니다.

그러나 명안 종사께서 이와 같이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총림에서 是非得失(시비득실)의 분별심을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서 洒洒落落(쇄쇄낙낙)(티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짝이 없이 높은 모양)한 자기 본래 마음을 본 사람이 그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허다히 논변 남자들은 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가는 뜻입니까?”, “크게 비어서 성스런 진리도 없다.”는 달마대사의 말에 걸려서 제일의제니 제이의제니 혹은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는 분별심을 놓아버릴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말로 알고서 분별생각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권하는 뜻으로 달마의 廓然無聖(학연무성)을 장황하게 풀이하고 있으며, 또한 無分別(무분별)의 입장에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달마가 不識(불식)(모른다)이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견해는 조사의 뜻과는 천지천격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教(교)와 禪(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分別情識(분별정식)으로 格外話頭(격외화두)를 思量卜卓安排(사량복탁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評唱(평창)에 이르되  
“五祖先師(오조선사)가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廓然無聖(학연무성)을 어떤 사람이 풀어서 얻으면 자기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으리라. 하나 같이 언어문자를 사용했으니 무제의 칠통을 타파해준 것은 그중에 특별히 달마가 기록하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한 마디 참구해 뚫어 얻으면  
천 마디를 일시에 뚫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분별심 끊어진 데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붙잡으리라”

그리하여 말하기를 이 한 마디를 참구하여 뚫어 얻으면 천 마디 만 마디를 일시에 뚫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분별심이 끊어진 곳에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붙잡으리라.  
옛 사람이 말하기를 뼈를 갈고 몸을 부수어도 죽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 이 한 마디가 백역 법문을 조월해버렸다.” 하였습니다.

五祖先師嘗說 只這廓然無聖 若人透得 歸家穩  
오조선사상설 只這학연무성 若인투득 귀가온  
坐一等是打葛藤 不妨與他 打破漆桶 達磨就中  
좌일등시타갈등 불방여타 타파일통 달마취중  
奇特 所以道 參得一句透 千句萬句一時透 自然  
기특 소이도 참득일구투 천구만구일시투 자연  
坐得斷把得定 古人道粉骨碎身未足酬 一句了然  
좌득단파득정 고인도분골쇄신미족수 일구요연  
超百億 초백억

이것은 일찍이 양무제에게 敎家(교가)의 極妙竅處(극묘견처)인 眞俗不二(진속불이)의 聖諦第一義(성제제일의)를 說(설)한 婁約法師(루약법사)와 傅大士(부대사)와 昭明太子(소명태자) 등의 法門(법문)이 있다.

그렇지만 달마 대사가 “비어서 성스러운 진리가 없다(廓然無聖학연무성)”는 법문은 저 敎家(교가)의 어떤 분별심으로 조각된 말 한 마디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自家(자기)의 本分事 當處(본분사 당처)를 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무제의 칠통을 타파해 준 법문으로는 달마의 이 법문이 그 중에 특별히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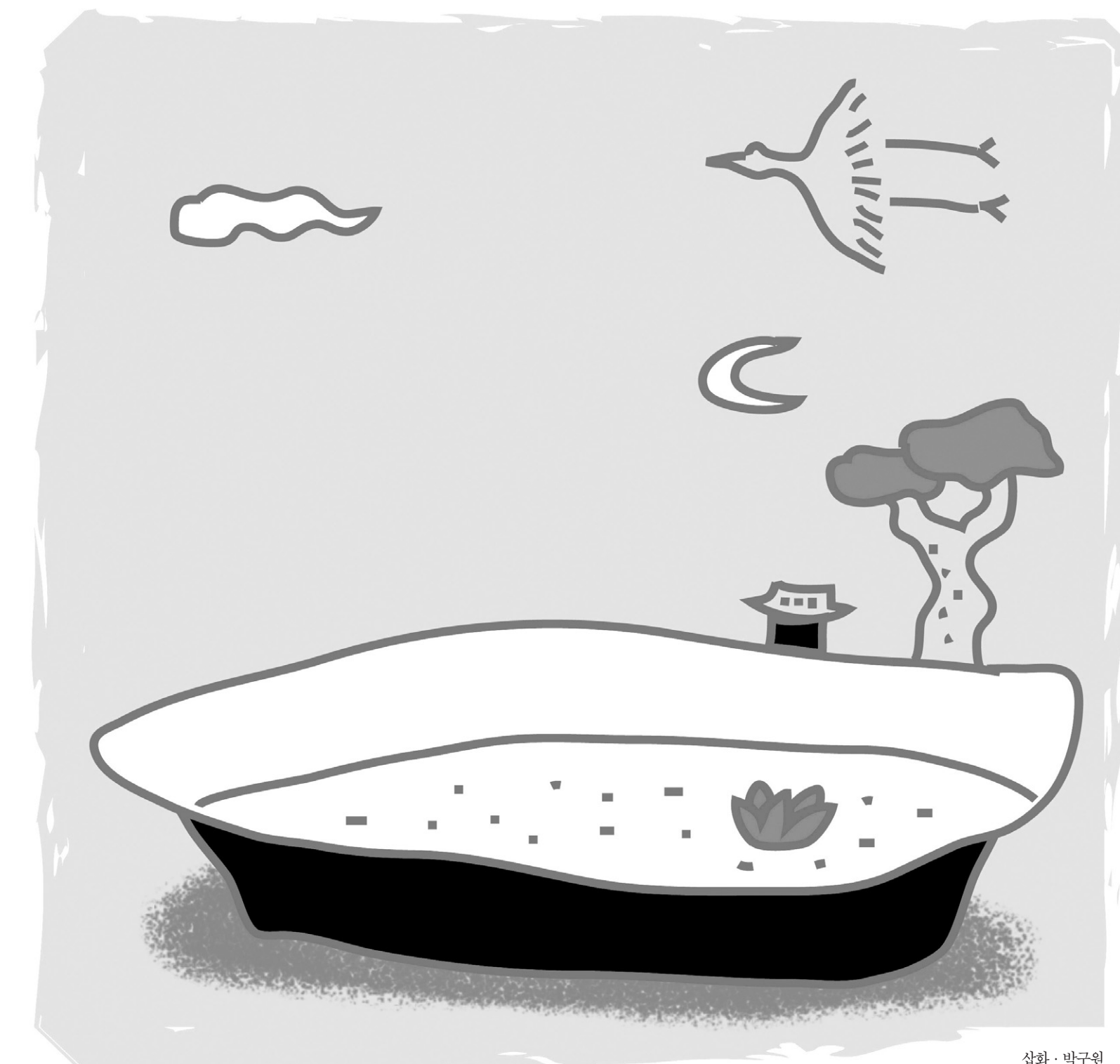
따시 말하여 저 敎家(교가)의 법문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이야기를 해준 격이요.

달마는 배고픈 사람에게 실제로 떡을 손에 쥐어준 격이니 이 때 만약 달마가 준 떡을 무제가 먹을 줄만 알았던들 영원히 주림을 면했을 것이니 배고픈 마음을 굶고 앉은 채로 (坐得斷(의득단))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본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把得定(파득정))이니 이는 배고픈 사람이 주린 배만 채우면 본래 원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 永嘉大師(영가대사)는 이르시되  
“그 은혜는 뼈를 가루내고 몸을 부수어도 갚을 수 없으니 한 말씀이 밝게 백역 법문을 조월했다다(粉骨碎身未足酬(분골쇄신미족수) 一句了然超百億(일구요연초백억))”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달마대사의 이러한 기특한 자비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 人我見(인아견)을 내어 다시 묻기를  
“짐을 대한 자는 누굽니까?〈對朕者誰(대정자수)〉” 하자 달마는 “모른다(不識(불식))”하고 배고픈 무제에게 떡 하나를 다시 쥐어준 뜻을 모르고서 〈不知落處(부지낙처)〉 눈을 굳이 다른 곳으로 움직여 찾으니(直得武帝眼目定動(직득무제안목정동)) 여기서서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없다 해도 맞지 않고 무분별의 입장에서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조사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하겠습니다.

達磨劈頭與他一撈 多少漏短了也 帝不省 卻以  
달마벽두여타일할 다소루두요야 제불성 각이  
人我見故再問 對朕者誰 達磨慈悲忒殺 又向道  
인아견고재문 대정자수 달마자비특살 우량도  
不識 直得武帝 眼目定動 不知落處 是何言說 到  
불식 직득무제 안목정동 부지낙처 시하연설 도  
這裏有事 無事拈來即不堪  
자리유사 무사넌來즉불감



삼화 · 박구원

그러므로 白雲守端和尚(백운수단화상)이 이 법문에 송하시되

一箭尋常落一鵬하고  
일전심상낙일조  
更加一箭已相觸도다  
경가일전이상요  
直歸少室峰前坐하니  
직귀소실봉전좌  
梁主休言去對招하라  
양주휴언거조

화살 하나로 거뜨히 수리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다시 화살 하나로 넉넉히 떨어뜨리고서 바로 소실봉 앞에 들어가 앉았으니 양주여 다시 가서 부르겠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배고픈 임금에게 수리를 두 번이나 잡아 주었으면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배를 채우면 될 것이지 먹을 줄은 모르고서 어떤 멍청한 놈이 달마대사를 또 부르려 하나냐는 것입니다.  
《端和尚有頌云(단화상유송문)...復云 誰欲招(무언수욕조)》

이상의 백운단 선사의 송을 바로 알면 달마대사의 廓然無聖法門(학연무성법문)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며 저 雪竇頌(설무송)과 佛鑑動頌(불감동송)과 拙衲(졸낙)의 頌(송)도 모두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 양무제는 일찍이 가사를 입고서 스스로 「放光般若經」(방광만야경)을 강설하였으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황금으로 변하는 감응을 얻었는지라도 밝혀 부처님을 받들고 천하에 절을 짓고 스님을 배출하도록 조서를 내렸으며 부처님의 교법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니 사람들이 불심천자라 했습니다.

武帝嘗披袈裟 自講放光般若經 感得天花亂墮  
무제상피가사 자강방광만야경 감득천화낙타  
地變黃金 辨道奉佛 誥詔天下 起寺度僧 依教修行 人謂之佛心天子  
행인謂지불심천자

이와 같이 佛法(법법)에 대한 훌륭한 신심과 이해와 공덕을 갖춘 佛心天子(불심천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발아래를 살펴볼 줄 모르고서 달마스님을 처음 만나서 묻기를

“짐이 절을 일으키고 스님들을 출가시켰으니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 대사가 이르되  
“공덕이 없다.”고 친절하고도 친절하게 일러 주었지만 무제는 알아듣지 못하고 달마대사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無功德(무공덕)(공덕이 없다)이라는 화두를 흔히 말하기를  
“무제가 有漏功德(유루공덕)에 걸려있기 때문에 달마가 無漏功德(무루공덕)을 알려준 것이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敎家(교가)의 分別妄識(분별망식)이지 조사의 뜻과는 또한 천지천격이라 하겠습니다.

佛法(법법)의 生命(생명)은 종일 떡 이야기만 하는 인어문자에 있지 않고 직접 떡을 먹어 주림을 면하는 자기 마음을 바로 알는데 있습니다.

이 자기 마음을 바로 알면 저 달마대사의 無功德(무공덕), 廓然無聖(학연무성), 不識(불식)이라 말씀하신 뜻을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떡을 쥐어 준 조사의 자비가 비로소 얼마나 친절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ow:1856~1950)는 문학자로서 일생에 노벨상 수상의 영광과 향년 95세의 장수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 남긴 절박한 墓碑銘(묘비명)(epitaph)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저기 엄빙엄빙 실컷 허송세월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와 같이 누구나 태어나서 일생 마음속에 건강하

게 오래 살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갈망하며 노력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죽기 마련이지만 그 소원을 버나드쇼처럼 성취한 사람은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은 마음이 없이 찰라찰라 마음 밖의 저러한 가치와 좋고 나쁜 경계를 쫓아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결국엔 허망하고 후회스러운 한탄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뒷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무서운 경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건강과 부와 명예를 성취한 소수의 사람이나 성취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이나 건강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기 근본 마음을 모르고 사는 데 인생의 큰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백년 미만이요, 富(부)도 백년미만이요, 명예도 백년미만이지만 자기의 참마음은 영원한 것이니, 이 참마음을 알면 얻고 잃음에 물들거나 걸리지 않고 항상 光明(광명)이 寂照(적조)하여 法界(법계)에 두루합니다.

이 자기의 참마음을 찾아 밝히는데 가장 수승하고



빠른 방법이 마음속에 화두를 가지고 놓지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 건강과 부와 명예를 포기하거나 떠나서 자기 마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바로 그 근본이 자기 마음인 줄 알면 화두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버나드쇼의 인생에 비하면 물러서지 않는 이러한 신심으로 부지런히 화두를 들어 영원히 변함없는 자기의 참마음을 밝히고자 서원하신 임제선원 참선 불자님들이야말로 참으로 자기와 세상의 지혜로운 등불인 것입니다. 모쪼록 눈코를 쥐어 뜯고 분초를 허송 말고 참구하십시오.

조사의 頌(송)에 이르시되

莫妄想兮好參詳  
막망상혜호참상  
不知終日爲誰忙  
부지종일위수망  
若知忙裡眞消息  
약지망리진소식  
一朵紅蓮出沸湯  
일타홍련출비탕  
일타홍련을 비탕

마음속에 쓸데 없는 생각 말고 화두 참구 하거라. 종일도록 누구 위해 바쁜 줄을 모르도다, 만약 바쁜 속에 자기의 참소식을 안다면 한 송이 붉은 연꽃이 끓는 물속에서 나오리라.

끝으로 달마조사께서 모양 있는 것을 배척하고 단적으로 전하신 마음의 대지혜를 위하여 줄남이 몇 수의 송으로 밝혀보겠습니다.

爲大智頌 大지혜를 위한 송  
濁流入海無蹤跡  
탁류입해무종적  
不見大海見濁流  
불견대해견탁류  
痴者如是謗大道  
치자여시방대도  
井蛙焉知滄溟悠  
정와언지황명유

흐린 물이 바다에 드니 아무 종적이 없는데 큰 바다는 보지 못하고 흐린 물만 보도다 어리석은 자 이와 같이 대도를 비방하니 우물 속 개구리가 어찌 저 푸른 바다의 아득함을 알리요.

外道聰明無智慧  
외도총명무지혜  
顛倒常離波求水  
전도상리파구수  
一智能滅萬年愚  
일지능멸만년우  
水不離波波是水  
수불리파파是水

외도들은 총명하게 분별하나 근원을 보는 지혜가 없으니 미혹하여 항상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니 하나의 지혜가 능히 만년 어리석음을 멸해버리니 물은 파도를 떠나 있지 않고 파도가 바로 물이다.

理氣分別五百年  
이기분별오백년  
波浪浪走虛過人  
파파람주허과인  
心眼不明總是病  
심안불명총시병  
不識自家法王身  
불식자가법왕신

이와 기로 분별하길 오백년이었으니 파도마다 부질없이 달리며 헛되이 보낸 사람이며 마음눈이 밝지 못하면 모두 병인 것이니 자기가 일깨만법의 왕임을 알지 못하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물들지 않듯  
분별 속에서  
참자기는 오염이 없다”

夫子說破一貫道  
부자설파일관도  
佛言萬法唯一心  
불언만법유일심  
悟即見煙便知火  
우즉견연변지화  
迷即求火煙外尋  
미즉구화연외심

공부자는 하나로 깨를 도를 설하고 부처님은 일체만법이 오직 하나의 마음임을 말씀하시니 깨달은 즉 깊은 연기를 보고서 문득 밝은 불 알고 미혹한 즉 불을 구하려 연기 없는 밖으로 찾도다.

四端善兮七情惡  
사단선혜칠정악  
能善能惡甚麼心  
능선능악심마심  
如鏡當臺胡漢現  
여경당대호한현  
無着無得恒古今  
무착무득항고금

사단은 착하고 칠정은 악하니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것은 무슨 마음이던가? 마치 대에 걸린 거울에 걸고 붉은 색이 나타나니 집착함도 걸림도 없이 고금에 변함없을 같도다.

不思善兮不思惡  
불사선혜불사악  
爲君祖師示直指  
위군조사시직지  
善惡本來無一心  
선악본래무일심  
泥中蓮花不着水  
니중연화부착수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그대를 위해 조사께서 공장 가리켜 주시도다. 선과 악 본래 없는 한 마음이며! 진흙 속의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음이로다.

別,是甚麼么  
별시심마  
頭長三尺只是誰么  
두장삼척지시수  
對面無言獨足立이로다.  
대면무언독족립

별, 이 무엇인고? 머리가 길어서 삼척이니 이 누구인가? 얼굴을 대하여 말없이 외발로 서있노라.